

모바일 환경에서 미소 이모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 추론에 관한 실험 연구: 사회적 지위 지각과 정서적 방향성의 상호작용

한 다 혜* 이 국 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현대인의 소통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눈다.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에 삽입된 미소 이모지(emoji)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실제 표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지각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중립적(일상) 대 부정적(실패) 대 긍정적(성공) 정서 상황에서 지인에게 미소 이모지가 삽입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이모지와 이 사람의 실제 표정 사이의 유사성을 추론하였다. 또한 추론 과제를 수행한 후 참가자들은 왜 그렇게 추론했는지 기술하였다(사후 설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은 부정적 상황에서 표정 유사성을 낮게 추론하였고, 긍정적 상황에서는 표정 유사성을 높게 추론하였으며, 중립적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추론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집단은 모든 정서적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고 추론하였다. 이후 사후 설문을 통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에 대해 개의치 않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경우는 높은 경우에 비해 문자 메시지 속 이모지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지각이 정서적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타인의 표정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지닌다.

주제어 : 사회적 지위 지각, 이모지, 정서적 방향성, 표정추론, 표정유사성

* 제 1저자 : 한다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us01041@snu.ac.kr

† 교신저자 : 이국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leegh1983@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4, Korean Society for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보편화되면서 현대인의 소통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타인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비대면 소통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얼굴을 직접 보고 소통하는 '면대면(face-to-face)' 환경에서의 소통에 비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통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표정이나 억양,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담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 상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문자 메시지에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 메시지와 함께 얼굴 표정을 표현한 기호들이 활용되곤 하는데, '이모티콘(emoticon, e.g. ^_^, π_π)'이나 '이모지(emoji, e.g., 😊😭😢)'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모바일 소통이 급증하면서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는 비대면 의사소통의 중요한 보조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모지는 일반 텍스트에 비해 대화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 표현의 주된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Barach, Feldman, & Sheridan, 2021; Cherbonnier & Michinov, 2022).

사실 지난 20세기까지는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직접 대면하며 소통해왔다. 그러나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며 디지털 기술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표정을 어렵짐작하며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문자 메시지의 텍스트와 더불어, 함께 전송된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활용하

여 상대방의 표정을 어렵짐작하며 소통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과거와 달리, 요즘 사람들은 문자 속의 이모지나 이모티콘을 보고 상대방의 표정을 추론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주요한 문제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동일한 표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상대방의 표정을 해석한다(Blanchette, Richards, & Cross, 2007; Venn, Watson, Gallagher, & Young, 2006). 예를 들어, 자신이 현재 행복하다면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이 행복이라고 평가하고, 자신이 현재 우울하다면 상대방의 우울한 표정을 우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도 타인의 표정 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방금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도 볼 수 있고 슬프다고도 볼 수 있는 모호한 표정을 보여주면, 그는 슬픈 표정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Gutiérrez-García & Calvo, 2014). 그러나 분노하게 하는 영화를 보고 잔뜩 화가 난 사람에게 동일한 표정을 보여주면, 화가 난 표정이라고 해석한다(Gollan, McCloskey, Hoxha, & Cocco, 2010).

이처럼 타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을 통해 표정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통해 표정을 해석할 때에도 인간의 심리적·외부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모티콘 혹은 이모지를 본 후, 상대방의 진짜 표정을 어떤 식으로 추론할까? 타인이 미소 짓는 이모지가 삽입된 인스턴트 문자를 보냈을 때,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진짜로 미소 짓고 있다고 추론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한 사람의 심리적 상황과 외부 환경이 이모지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 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심리적 상황 요인은 '주관적 사회적 지위 지각(낮음 vs. 높음)'을, 외부 환경 요인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방향성(긍정: 성취 vs. 부정: 실패)을 처치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상대방의 실제 표정을 추론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표정 유사성 추론' 실험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지금껏 사회적 지위가 판단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도덕적 혹은 윤리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Piff, Stancato, Côté, Mendoza-Denton, & Keltner, 2012). 반면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직면하는 이모지나 이모티콘에 대한 해석에 사회적 지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턴트 문자 메시지 대화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메시지 전송자의 표정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외적 타당도)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금까지 사회적 지위의 효과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계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객관적 사회적 지위의 효과에 주목한 경향이 있다(이국희, 2021). 그러나 사회적 지위는 객관적 요소뿐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존재한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의미하는 심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무조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에서 벗어나, 한 개인이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표정 평가를 달리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존 사회적 지위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져 온 모바일 상황에서의 이모지의 효과가 개인별 및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Tan et al., 2020). 하나는 객관적(objective) 사회적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subjective) 사회적 지위이다(Huang et al., 2017).

객관적 사회적 지위는 인구통계학적인 지표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소득의 높고 낮음, 학력의 높고 낮음, 직업적 직위의 높고 낮음, 계약 관계에서의 갑을의 관계는 모두 객관적 사회적 지위에 해당한다.

한편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심리적인 요소

다(Griskevicius et al., 2011a). 이는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Griskevicius et al., 2011b).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지위 지각'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Centers(1949)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객관적 사회적 지위 사이에는 항상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거나 최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는 준거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낮은 주관적 사회적 지각으로 연결되며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관적 사회적 지위 지각과 가계소득과 같은 객관적 사회적 지위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도 그 연관성($r = .27$)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emakakos et al., 2008; Goodman et al., 2003). 즉,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달리,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심리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통해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위 지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위 지각과 상황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력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긴다(Karraker, 2014). 즉,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적 더 작게 느끼는 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Stafford, Deeg, & Kuh, 2016).

예를 들어 일상에서 소득,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음을 시사한다(Kraus, Piff, & Keltner, 2009).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Ross & Mirowsky, 1992),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Schieman & Plickert, 2008).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Lachman & Weaver, 1998).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자율성(autonomy), 통제감(sense of control) 및 환경 장악력(environmental mastery)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Curhan et al., 2014). 다시 말해,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율성·통제감·환경 장악력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Adler et al(2000)는 이러한 논의를 사회적 지위 지각(=주관적 사회적 지위)으로 확장시켰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평가인 사회적 지위 지각도 자율성, 통제감, 환경 장악력 지각에 동일한 관계 혹은

은 더 강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Adler et al., 2000). 즉,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을수록 환경이나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인식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위 지각과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 그리고 이모지 해석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긍정 vs. 부정)에 대한 반응에 큰 차이를 보인다(Cabral & de Almeida, 2022). 여기서 말하는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이란, 특정한 상황이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혹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와 관련된 상황적 변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으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고, 흥분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으면 긍정적 상황에서 흥분하고, 쾌감을 느낀다. 이뿐만 아니다.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으면 부정적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착하지만,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으면 부정적 상황에서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

심지어 사회적 지위 지각과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의 상호작용은 타인의 표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 상

황(e.g., 승리, 성공)에서는 타인의 표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상황(e.g., 패배, 실패)에서는 타인의 표정을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Moeller et al., 2022; Steckler & Tracy,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지각과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을 '긍정/부정/중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으로 두고, 사회적 지위 지각과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이 인간의 표정을 모사한 이모지(인스턴트 메시지에 첨부할 수 있는 감정 표현 그림)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본 실험은 사회적 지위 지각과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이 미소 이모지와 그 이모지를 전송한 사람의 실제 표정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추론(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가설-a와 가설-b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가설-a.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은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에 따라 표정 유사성 추론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b.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은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표정 유사성을 추론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설계 및 대상

실험에서는 사회적 지위 지각 2 (참가자간: 낮음 vs. 높음) ×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 3 (참가자내: 중립적 vs. 부정적 vs. 긍정적)이 미소

이모지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 간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혼합 요인설계(mixed factorial design)를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18-28세(Mean Age = 19.76, SD = 1.56)의 대한민국 경기도 소재 대학 학부생 522명(남: 228, 여: 294)이 참여하였다. 대상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었고, 모국어는 한국어였다.

재료

사회적 지위 지각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나는 현재 원하는 것을 살만큼 돈이 충분히 있다, ②나는 현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는다, ③나는 현재 내가 비교적 부유하다고 느낀다(Griskevicius et al., 2011a).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에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의 α 분석을 진행한 결과, α -값이 .78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 조건은 중립적 vs. 긍정적 vs. 부정적 상황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조작하였다. 중립적 상황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아는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제시하였으며, 긍정적 상황은 [아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1시간 후, 나의 성취를 본 사람 중 한 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정적 상황은 [아는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1시간 후, 나의 실수를 본 사람 중 한 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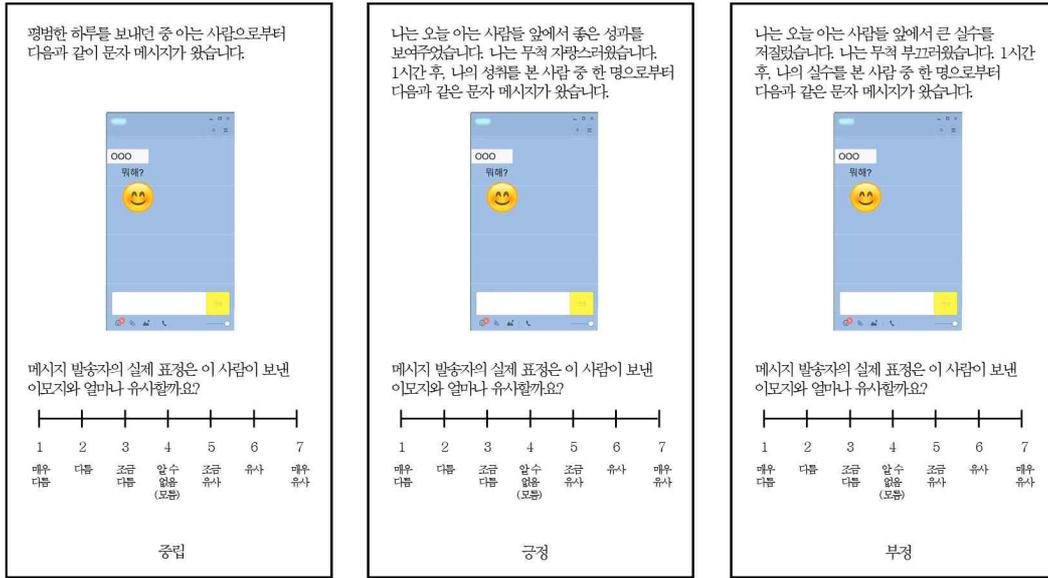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제시하였다.

절차

실험의 자극은 노트북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자극 및 질문 확인 속도를 자기 스스로 제어하면서 응답지에 자신의 응답을 표시하거나 기술하였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다른 정서적 상황(중립적 vs. 긍정적 vs. 부정적)에 대한 표정 유사성 추론 과제를 먼저 진행하였고, 곧이어 사회적 지위 지각을 측정 문항에 응답하였다. 상황 제시 순서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두 가지 상황 제시 순서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하나는 중립적 상황 → 긍정적 상황 → 부정적 상황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고(순서A), 다른 하나는 중립적 상황 → 부정적 상황 → 긍정적 상황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었다(순서B). 이와 같은 자극 제시 순서는 선행연구의 감성 측정 조작 상황에서 사용된 바 있다(이국희 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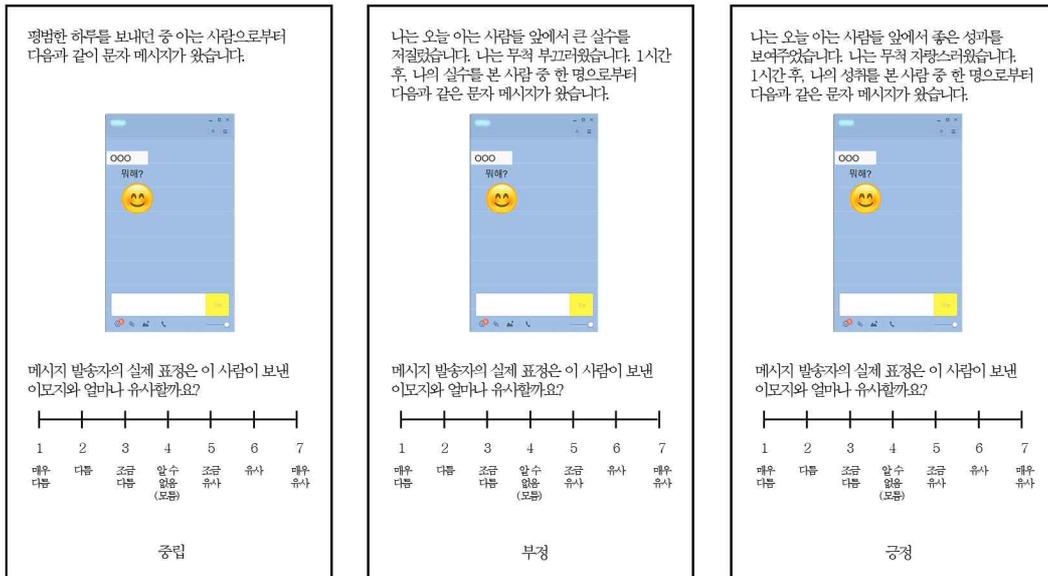
그림 1은 표정 유사성 추론 과제의 절차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의 순서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서A 조건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중립적 상황에서 받은 미소 이모지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이 얼마나 유사할지에 대한 추론을 7점 척도로 진행하였다(1: 매우 다름, 4: 알 수 없음, 7: 매우 유사).

한 가지 상황에 대한 표정 유사성 추론 과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이 2점을 주었으면, 2점을 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였고, 6점을 주었으면 6점을 준 이유를, 4점을 주었으면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긍정적 상황,



(A) 순서A

시간 흐름



(B) 순서B

시간 흐름

(A)는 순서A의 절차이다(상단). (B)는 순서B의 절차이다(하단). 참가자들은 두 가지 순서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그림 1. 표정 유사성 추론 절차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각각 과제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순서B 조건 참가자들은 중립적 상황에서 받은 미소 이모지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이 얼마나 유사할지에 대한 추론을 7점 척도로 진행한 후, 자신의 평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였고, 부정적 상황, 긍정적 상황 순서로 같은 과제를 진행하였다.

여기까지 수행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지각을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실험의 모든 절차를 마치기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지각과 관련된 세 개의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회적 지위 지각 지표값(index score)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타당하고 신뢰 있는 집단 구분 방식으로 알려진 중앙값 분할 기법(median split

method)을 통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였다(DeCoster, Gallucci, & Iselin, 2011). 사회적 지위 지각 지표값의 중앙값은 4.67이었고, 4.67보다 점수가 낮은 집단을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으로, 4.67보다 점수가 높은 집단을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4.67)은 246명이었고,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집단(>4.67)은 216명이었다. 이후의 분석도 4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상황 제시 순서가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주효과는 없었고($p = .805$), 상황 제시 순서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이 이 추론에 미치는 효과도 없었음($p = .649$)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주효과($p = .373$) 및 성별과 상황 간 상호작용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효과도 없었음($p = .359$)을 확인하였다.

표정 유사성 추론

사회적 지위 지각과 이모지 제시 상황의 정

표 1. 표정 유사성 추론의 분석 결과 요약

표정 유사성 추론 (1-7)	이모지 제시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
	M (SD)	M (SD)	M (SD)
낮음(< 4.67) (N=246)	4.50 (1.27)	3.19 (1.29)	5.24 (1.25)
	높음(> 4.67) (N=216)	4.30 (1.11)	4.07 (1.59)
전체 (N=462)	4.40 (1.21)	3.60 (1.50)	4.92 (1.19)

서적 방향성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2 X 3 혼합변량분석방법 (mixed ANOVA)을 수행하였다. 표 1은 표정 유사성 추론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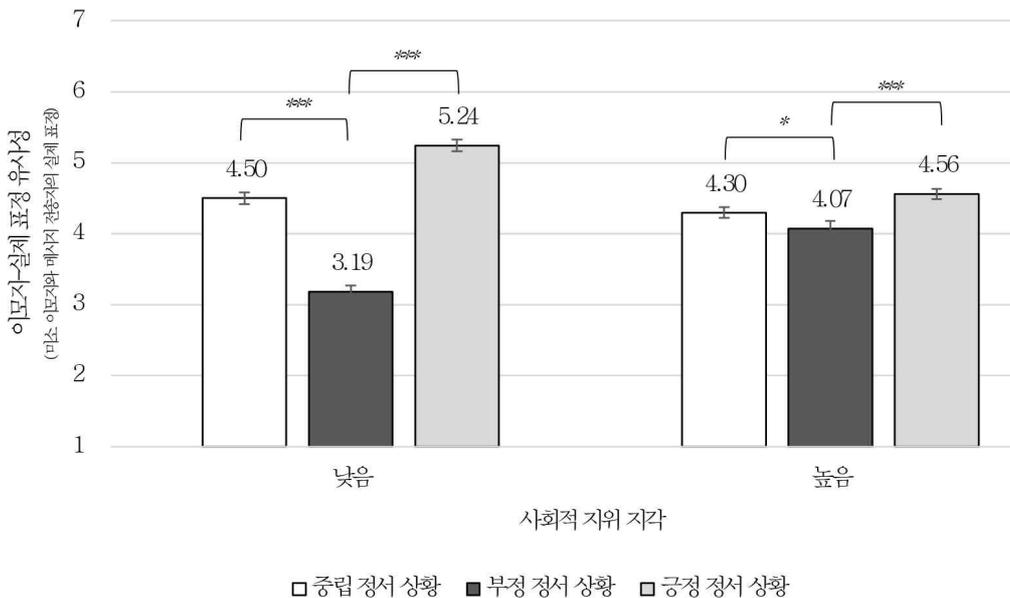
우선, 이모지 제시 상황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F(2, 920) = 145.65, p < .001, \eta_p^2 = .24$). 구체적으로 중립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소 이모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이 이모지와 얼마나 유사한지 알기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추론하였다($M = 4.40, SD = 1.21$). 한편, 부정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소 이모지 전송자의 표정이 이모지와 다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M = 3.60, SD = 1.50$). 반대로, 긍정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소 이모지 전송자의 표정이 이모지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을 보였다($M = 4.92, SD$

$= 1.19$).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목격한 사람이 미소 이모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실제 표정은 미소가 아닐 것이라고 추론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목격한 사람이 미소 이모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실제 표정도 미소일 것이라고 추론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지각과 이모지 제시 상황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2, 920) = 57.55, p < .001, \eta_p^2 = .11$). 다음의 그림 2는 이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은 중립적 정서 상황에서는 이모지와 메시지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

***: $p < .001$, *: $p < .05$.

그림 2. 사회적 지위 지각과 미소이모지 제시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효과

전송자의 실제 표정 간의 유사성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M = 4.50, SD = 1.27$),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M = 3.19, SD = 1.29$), 긍정적 정서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M = 5.24, SD = 1.25$). 또한 낮은 사회적 지위 지각을 보인 참가자들이 중립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에서 보인 표정 유사성 추론 응답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t(245) = 12.18, p < .001$),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 간의 참가자 응답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5) = 18.14, p < .001$).

한편,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집단은 중립적 정서 상황에서 이모지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 간의 유사성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M = 4.30, SD = 1.11$).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타났으며($M = 4.07, SD = 1.59$), 긍정적 정서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표현했다($M = 4.56, SD = 1.01$).

물론 높은 사회적 지위 지각을 보인 참가자들이 중립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에서 보인 표정 유사성 추론 응답값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었다($t(215) = 2.01, p = .046$). 또한,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 간의 참가자 응답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5) = 3.89, p < .001$).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차이는 낮은 사회적 지위 지각을 보인 참가자들이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에 따라 보인 반응의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정 유사성 추론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본 사람의 실제 표정과 그 사람이 보낸 미소 이모지 표정은 전혀 다르다고 추론하지만, 자신의 성취나 성공을 본 사람의 실제 표정과 그 사람이 보낸 미소 이모지는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는 가설-a와 가설-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다르게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집단은 실패나 실수를 한 부정적 상황인지, 성취나 성공을 한 긍정적 상황인지에 관계없이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과 이모지의 표정이 얼마나 유사한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부연하자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집단은 정서적으로 긍정적 상황인지 부정적 상황인지에 따라 표정의 추론의 방향과 강도가 민감하게 달라졌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정서적 상황에 따라 표정 추론의 방향과 강도에 민감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사후 설문

표정 유사성 추론 후 이어진 사후 설문(해당 과제에서 해당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중립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중 4점을 부여한 사람들은 이모지와 상대방의 표정 간의 유사성을 추론하는 것에 있어 '잘 모르겠다,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반이다, 특별한 표정이 없을 것도 같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삼입한 것이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중립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 4점을 부여한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앞선 중립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의 같은 반응 경향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한 반응의 이유는 전혀 다름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중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에 대해 '비웃고 있을 것이다, 조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사악하게 웃고 있을 것이다, 고소해 하고 있을 것이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4점을 선택했고, 4점을 선택한 이유로 '문자 전송자의 실제 표정이 무엇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의 표정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다, 무미건조함을 피하기 위해 넣은 표정이다'는 식의 진술을 많이 기록하였다.

즉,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타인의 실제 표정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만,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지, 타인의 실제 표정이 어떻게 될지 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긍정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 중 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사람들은 '성공한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실제로 웃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나의 진면목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웃으면서 나에게 말을 걸 것이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여전히 4점 대 점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4점을 선택한 이유로 '내 성취와 성공이 중요하다, 타인의 표정을 추론할 시간

에 연습을 하나 더 하겠다, 그냥 기분 좋다, 딱딱한 느낌을 피하거나 예의상 넣은 표정이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즉,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공 혹은 성취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한다는 식의 생각을 드러낸 반면,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간의 표정을 묘사한 이모지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모지가 상징하는 표정과 그 이모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을 얼마나 유사하다고 추론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혼합요인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표정 유사성 추론 과제를 실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추론에 문자 수신자의 사회적 지위 지각(낮음 vs. 높음)과 이 문자를 수신하기 전에 경험했던 상황의 정서적 방향성(중립 vs. 긍정 vs. 부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소 이모지를 사용하여 표정 유사성 추론 과제를 진행하였고, 과제 이후에는 그렇게 추론한 이유에 대해 사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지위 지각과 문자 메시지 수신 전 상황이 표정 유사성 추론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은 중립적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추론하였고, 부정적 상황에서는 이모지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이 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였으며, 긍정적 상황에서는 이모지와 실제 표정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고 추론하였다. 이는 실험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이렇게 추론한 이유에 대한 사후 설문에서도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기술한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중립적 상황에서 이들은 메시지 전송자의 표정이 이모지와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기술했고, 부정적 상황에서 이들은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은 미소가 아닌 조소나 조롱,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일 것이라고 기술했으며, 긍정적 상황에서 이들은 메시지 전송자의 표정이 이모지와 같이 진정한 미소, 축하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실험에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왜 그렇게 추론했는지에 대한 사후 설문에서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알기 어렵다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송자의 실제 표정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거나, 관심이 없거나, 문자 메시지가 주는 무미건조하고 딱딱하며 예의 없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넣은 것일 뿐이라거나, 자기 자신의 감정과 성취가 중요하지, 타인의 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학력, 소득, 직장에서의 직급), 주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의 시선(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지 아니면 나쁘게 볼지) 혹은 평가(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지)에 개의치 않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맥상통한다(Piff, Stancato, & Horberg, 2016). 반면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주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판단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Piff, 2014).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Piff et al., 2012). 실험의 사회적 지위 지각이 낮은 사람들이 부정적 상황에서 미소 이모지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메시지 전송자가 조롱과 비웃음의 표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 이유가 바로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학술 및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지각이 인간의 표정 추론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객관적 사회적 지위에만 주목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지각이라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메시지 전송자가 표현한 이모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드문 연구로 학술적 시사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껏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직면하는 이모지나 이모티콘에 대한 해석에 사회적 지위 지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턴트 문자 메시지 대화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메시지 전송자의 표정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외적 타당도)이 높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메시지 기능을 활용한 비언어적 표현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실용적 함의를 지닌다. 스마트폰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한 비대면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심리학자들은 인스턴트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Kelly & Miller-Ott, 2018; Wu et al., 2014). 특히 대면 의사소통과 비교할 때, 비대면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실제 몸짓이나 실제 표정을 알 수 없고, 같은 공간과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하기에 똑같은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Cleary, 2004). 본 연구에서도 인간의 심리적·외부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이모지의 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비대면 소통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 본 연구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 동일 자극을 주고자 이모지가 나오기 전의 대화 맥락은 통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모지와 메시지 대화 맥락을 함께 활용하여 상대방의 표정을 추론하게 된다.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대화 맥락과 이모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다면, 관련 연구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한 한 참가자에게 중립, 긍정, 부정이라는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노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자극의 순서에 따른 효과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무선배정을 통해 실험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사회적 지위 지각과 객관적 사회적 지위 중 메시지에 포함된 표정 추론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혹은 더 뛰어난 예측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주관적 사회적 지위 지각과 객관적 사회적 지위(e.g. 소득, 학력, 직업적 지위)를 동시에 조사한 후 메시지에 포함된 실제 표정을 넘어서 감정을 해석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면서 사회적 지위라는 요인과 메시지에 포함된 감정 해석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소 이모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미소 이모지 외에도 슬픔, 화남 등 다양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이모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모지에 따른 감정 표현 및 해석과 관련한 연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지위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미디어 콘텐츠 등장인물의 표정 및 감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국희 (2021). 온라인 게임에서의 지위와 성장 중 무엇이 청소년의 웃음 이모티콘 긍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한국HCI학회 논문지*, 16(2), 5-12.
- 이국희, 이형철, 안충현, 기명석, 김신우 (2015). 영상의 색온도와 향의 감성적 일치가 영상실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HCI학회 논문지*, 10(1), 29-41.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Barach, E., Feldman, L. B., & Sheridan, H. (2021). Are emojis processed like words?: Eye movements reveal the time course of semantic processing for emojified text.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8, 978-991.
- Blanchette, I., Richards, A., & Cross, A. (2007).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facial expressions: The influence of contextual cue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0(8), 1101-1115.
- Cabral, J. C. C., & de Almeida, R. M. M. (2022). From social status to emotions: Asymmetric contests predict emotional responses to victory and defeat. *Emotion*, 22(4), 769-779.
- Centers, R. (1949).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rbonnier, A., & Michinov, N. (2022). The recognition of emotions conveyed by emoticons and emoji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echnology, Mind, and Behavior*, 3(2), 1-12.
- Cleary, S. (2004). *The communication handbook: A student guide to effective communication*. Juta and Company Ltd.
- Curhan, K. B., Levine, C. S., Markus, H. R., Kitayama, S., Park, J., Karasawa, M., ... & Ryff, C. D. (2014). Subjective and objective hierarchies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logical well-being: A US/Japan comparis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8), 855-864.
- Demakakos, P., Nazroo, J., Breeze, E., & Marmot, M. (2008).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ro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Social Science & Medicine*, 67(2), 330-340.
- Gollan, J. K., McCloskey, M., Hoxha, D., & Coccaro, E. F. (2010). How do depressed and healthy adults interpret nuanced facial express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4), 804-810.
- Goodman, E., Adler, N. E., Daniels, S. R., Morrison, J. A., Slap, G. B., & Dolan, L. M. (2003). Impac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on obesity in a biracial cohort of adolescents. *Obesity research*, 11(8), 1018-1026.
- Griskevicius, V., Delton, A. W., Robertson, T. E., & Tybur, J. M. (2011a). Environmental contingency in life history strategies: The influence of mort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reproductive t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 Griskevicius, V., Tybur, J. M., Delton, A. W., & Robertson, T. E. (2011b). The influence of mort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risk and delayed rewards: A life history theory

-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6), 1015-1026.
- Gutiérrez-García, A., & Calvo, M. G. (2014). Social anxiety and interpretation of ambiguous smiles. *Anxiety, Stress & Coping*, 27(1), 74-89.
- Huang, S., Hou, J., Sun, L., Dou, D., Liu, X., & Zhang, H. (2017). The effect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rural-to-urban migrants in China: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social mobility. *Frontiers in Psychology*, 8, Article 819.
- Karraker, A. (2014). "Feeling poor" perceived economic position and environmental mastery among older America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6(3), 474-494.
- Kelly, L., & Miller-Ott, A. E. (2018). Perceived miscommunication in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exted conversation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3(4), 267-280.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Krumhuber, E. G., Hyniewska, S., & Orłowska, A. (2021). Contextual effects on smile perception and recognition memory.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Advance online publication.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63-773.
- Lau, S. (1982). The effect of smiling on person percep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7(1), 63-67.
- Moeller, J., von Keyserlingk, L., Spengler, M., Gaspard, H., Lee, H. R., Yamaguchi-Pedroza, K., ... & Arum, R. (202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motional stability, *Mental health, and Household Resources. Aera Open*, 8.
- Operario, D., Adler, N. E., & Williams, D. R. (2004). Subjective social status: Reliability and predictive utility for global health. *Psychology & Health*, 19(2), 237-246.
- Palau, R., Fuentes, M., Mogas, J., & Cebrián, G. (2021).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at Catalan school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Technology, Pedagogy and Education*, 30(1), 183-199.
- Piff, P. K. (2014). Wealth and the inflated self: Class, entitlement, and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 34-43.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iff, P. K., Stancato, D. M., Côté, S., Mendoza-Denton, R., & Keltner, D. (2012). Higher social class predicts increased unethical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11), 4086-4091.
- Piff, P. K., Stancato, D. M., & Horberg, E. J. (2016). Wealth and wrongdoing: Social class differences in ethical reasoning and behavior. In J.-W. van Prooijen & P. A. M. van Lange

- (Eds.), Cheating, corruption, and concealment: The roots of dishonesty (pp. 185-2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 C. E., & Mirowsky, J. (1992). Households, employment, and the sense of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3), 217-235.
- Schieman, S., & Plickert, G. (2008). How knowledge is power: Education and the sense of control. *Social Forces*, 87(1), 153-183.
- Stafford, M., Deeg, D., & Kuh, D. (2016). Educational attainment and women's environmental mastery in midlife: findings from a British birth cohort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2(4), 314-335.
- Steckler, C. M., & Tracy, J. L. (2014). The emotional underpinnings of social status. In J. T. Cheng, J. L. Tracy, & C. Anderson (Eds.), *The psychology of social status* (pp. 201-224).
- Tan, J. J. X., Kraus, M. W., Carpenter, N. C., & Adler, N. E.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1), 970-1020.
- Tversky, A., & Kahneman, D. (1985).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In Behavioral decision making (pp. 25-41). Springer, Boston, MA.
- Venn, H. R., Watson, S., Gallagher, P., & Young, A. H. (2006). Facial expression perception: An objective outcome measure for treatment studies in mood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 psychopharmacology*, 9(2), 229-245.
- Wu, R., Appel, L., Morra, D., Lo, V., Kitto, S., & Quan, S. (2014). Short message service or disService: Issues with text messaging in a complex medical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83(4), 278-284.

원고접수일: 2024. 07. 22.

수정원고접수일: 2024. 08. 23.

최종원고접수일: 2024. 08. 26.

Experimental Study on Inference of Actual Facial Expressions of Smile Emoji Senders in a Mobile Environment: Interaction between Social Status Perception and Emotional Direction

Dahye Han¹⁾ Guk-Hee Lee²⁾

¹⁾PhD,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How well does the smiley emoji inserted in the text message reflect the sender's real expression? This study conducted experiment to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the psychological factor, Social Status Perception(SSP).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a group with low SSP and a group with high SSP. Then, when they received a text message with a smiley emoji from an acquaintance in a neutral(everyday) vs. negative(failure) vs. positive(success) emotion situation, they inferred the similarity between the emoji and the person's actual facial expression(facial expression similarity, FES). After experiment, participant described why they reasoned that way(post-questionnaire). As a result, the group with low SSP inferred FES low in negative situation, high in positive situation, and inferred not to know in neutral situation. However, the group with high SSP reasoned that they did not know in all emotional situations and responded that they inserted a smiley emoji to soften the atmospher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ose with low SSP are more sensitive to the facial expressions of others than those with high SSP.

Key words: Social status perception, Emoji, Emotional direction, Facial expression inference